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다음 주일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 지역별 사랑방 후반기 모임은 다음 주 종강입니다.
- 성서일기 범위가 요한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 멧쟁이학교 학부모모임이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종강발표회가 11월29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어린이학교 학년말여행이 25일(화)~27일(목) 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해분 권사 자녀들 (생신 감사)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최신혜 집사 (생일 감사)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7호

2025년 11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순례자의 길

지난 토요일 늘푸른들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하는 천로역정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천로역정]은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 유혹과 시험을 지나 하늘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책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크리스천의 신앙여정을 형상화한 순례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신앙 여정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을 기본으로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기도와 찬양을 하며 걷는 순례 길은 신앙에 대해 깊이 성찰 할 수 기회를 주었습니다.

깨달은 바를 몇 가지 나누자면, 크리스천의 원래 이름이 “Gracelessness” “은혜 없음”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불신의 상태라는 것을 세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멸망의 도시에서 죄의 짐에 눌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에서 크리스천 즉,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의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십자가 앞에서 짐을 벗어버리는 장면도 아니요, 아볼루온(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도 아닌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혀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삶을 지탱하기 어렵고 끝도 없이 내려가는 낙담의 마음을 잡을 길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싸웠다고 생각하고,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목에 걸려 있던 ‘약속의 열쇠’를 발견하여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아마도 존 번연은 신앙인들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이 장면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 천성에 함께 들어간 사람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절망’과 반대되는 ‘소망’입니다.

요단강에서 눈물을 흘리는 크리스천을 힘겹게 끌어올리는 소망의 형상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소망이야말로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례의 길을 걸으며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순례자가 천 곳 뿔라의 땅에서 애찬식을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글게 앉아 돌아가며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옆에 사람에게 전한 메시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이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나누길 원하시는 구나’

종종 왜 이렇게 살아야할까 삶의 방향도 흐릿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흔들렸었는데 이번 순례의 길을 걸으며 마음을 일으키고 삶의 목적도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천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한주간의 말씀

“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입니다 ”
 < 룻기 1장 16절b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70, 365 / 393
 기도 : 이용신 장로
 성경 : 룻기 3장
 제목 :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다

1. 내용: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다 (What)

<문단구분>

- 1~6절 나오미의 계획
- 7~15절 보아스의 반응
- 16~18절 나오미의 지혜

2. 의미: 보아스가 선을 지키다 (Why)

- 1) 보아스가 룻의 형편을 살피다
- 2)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지기로 하다
- 3) 그러나 적합자에게 먼저 확인하기로 하다

3. 적용: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How)

- 1) 올바른 판단을 하는 품위 있는 사람이 되자
- 2)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실천하자.
- 3)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자.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찬양해서 감사
 여행해서 감사
 살아있어 감사
 건강해서 감사
 축구해서 감사
 감사해서 감사
 잘생겨서 감사
 예뻐서 감사

뒷부분은 푸른꿈이 직접 개사했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요한복음 4 : 23-24	인도자
* 예배의 찬송	37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이사야서 1 : 18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412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룻기 1 : 6-18, 4 : 13-17	설교자
성가대 찬양	309	따뜻한사랑방
설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거룩하다』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94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410(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최창수 정혜옥 / 봉헌위원 : 한미선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거룩하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기근으로 모압 지방에 갔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룻은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거룩하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거룩합니다.(다르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을 기초로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헤세드'의 만남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신실함,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헤세드의 만남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회는 만남의 결핍 상태로 은둔형 외톨이 많습니다. 그 결과 정서적 고립자가 많고, 자살,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받은 거룩한 만남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없어도 먼저 베푸는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윤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나무로 만들어진 꾸러기 의자를 하나씩 앞에 두고 양손에 나무 막대를 들었습니다. 노래에 맞춰 의자를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한 박자에 한 번씩 두 손으로 앞부분을 두드렸지만 좀 지나자 의자의 여러 부위로 넓어지고 강약이 생기고 두 손을 따로 움직이고 박자가 잘게 쪼개집니다. 차에서도 음악을 들으면 손으로 다리를 두드리거나 앉아서 온 몸으로 리듬을 타던 꾸러기들이 음률놀이 시간에 아주 신이나 의자 드럼을 연주합니다. 드럼 연주를 마치고 바닥에 훌라후프를 늘어놓습니다. 노래 리듬에 맞춰 이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로 느리게 또 빠르게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음악을 들으며 온 몸으로 표현합니다.

'어 우리밭에 이게 뭐지?' 꾸러기 밭에 봄에 심었던 토마토가 별 수확도 없이 너무 빨리 시들었는데 옆에서 텃밭을 가꾸시던 공동체 어른들께서 어느날 그 자리에 무를 심어주셨습니다. 무가 자라고 추위가 오니 꾸러기들 주려 심으셨다고 뽑아가라고 하셔서 하나씩 밑동을 두 손으로 잡고 뽑아보았습니다. 자연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집에 갈 때도 열심히, 심지도 않은 가꾸지도 않은 자기 무를 챙깁니다. 또 이렇게 받은 사랑을 챙겨갑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학기말 정리로 향하고 있는 어린이 학교입니다. 종강발표회의 테마를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고민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기도 했습니다. 독감으로 학생의 반이 결석을 한 날도 있었지만 금요일을 기점으로 한 친구 외엔 모두 출석을 해서 얼마나 기뻐던지요. 이번 주는 5.6 학년의 마지막 특별 철학수업이 있었습니

배움과 가르침

다. 논리적인 사고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식있는 질문을 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었기를 바라며 멋쟁이를 거친 선배선생님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아래 학년들은 미술도서관에서 책을 마음껏 읽으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은 올해의 마지막 학부모 회의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부모님들도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이상 어린이학교 소식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영하의 날씨를 맞보는 주간이었습니다. 멋쟁이들은 삼한사온을 직접 경험해가며 종강발표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업들도 하나둘씩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학기를 정리하는 학생자율평가서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목 점수 성적표 대신 학생이 다방면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멋쟁이는 객관성을 기르는 과정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금요일에는 마라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남자 1등부터 윤치후, 박성현, 이은찬 멋쟁이가, 여자 1등부터 진나우, 조은해, 최정원 멋쟁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 박수와 상품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멋쟁이가 작년에 비해 기록을 많이 단축하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6학년도 졸업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곳들을 돌아다니며 맛있게 먹고 많은 것을 구경하며 즐겁게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기말면담과 종강발표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한 학기를 잘 정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이어진 >

평범한 하루 일상에 감사

어느덧 11월이 다 지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이 아름다운 고운 단풍으로 늦가을의 정취를 즐겼는데... 이제는 초 겨울의 찬바람이 불면서 으스스 몸을 움츠리게 되네요.

토요일 오후 교회 사무실 당직으로 사무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에게 2025년은 예전과 다른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항상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몸과 마음이 고생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살았던 사람의 생명이 한계적인 존재이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나 생각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함으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요사이 저는 목요일 하루 차량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학교 1학년 2명을 태우고 수영장에 갑니다. 아이들이 수영하는 동안 1시간 정도 근처 거리를 걷거나, 야외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하루는 하원 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사선생님이 할머니가 같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네~ 웃으면서 응답하는데 두 꼬마가 나를 올려다봅니다.

재잘거리는 아이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 차장에 비치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며 무언지 모를 행복감에 젖어 듭니다. 교회 주차장에 도착.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실로 달려갑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삶의 터전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397장

성 경 : 잠언 10장 1~16절

말 씬 :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자위대 발동에 대한 발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은 서해 중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긴장관계로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상하고 해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버리고 평화와 공존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예담교회를 위해 >

-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 *다음 전시회와 장소를 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
- *공동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독감 유행 중에 있는 어린이학교와 공동체 식구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 *졸업 여행 중에 있는 멧쟁이 6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 곳곳에 낙엽이 떨어져서 멧쟁이들과 함께 낙엽을 모아 밭에 거름으로 쌓아두었습니다. 모든 작물을 다 거둔 밭에 남아 있던 비닐도 정리하여 처리장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11월에 생일을 맞이한 식구들을 위해 축하하는 모임도 가졌습니다. 감기를 비롯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마음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